

우리는 비트 따라, 광주 청년 마음 있다

 **청년잇소** BPM_Lab 박소현 활동가

카페·전시장서튼 전자음악...장벽 낮춘 춤판
“서울 안 가도 좋아” 지역에서 쏘아 올린 울림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선화, 윤준현, 윤동규와 함께 로컬 전자음악 디제잉 크루 BPM_Lab을 운영 중인 박소현입니다.

-BPM_Lab에서 하고 있는 활동을 소개해주세요.

△BPM_Lab은 광주를 기반으로 전자음악과 DJ 문화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음악 크루입니다. 공연장뿐만 아니라 바, 카페, 전시장, 창고 등 다양한 공간을 무대로 삼아 각 장소의 분위기와 특성에 맞는 DJ 세션과 파티를 기획합니다. 다양한 전자음악을 바탕으로 음악을 듣고 춤추는 경험을 일상적인 공간으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정기적인 DJ 파티와 리스닝 세션, 지역 공간 및 문화예술 프로젝트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음악과 DJ를 소개하며, 서로 다른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BPM_Lab은 음악을 단순히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음악을 통해 공간과 사람, 움직임이 서로 연결되는 순간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역 청년들이 전자음악과 레이드 문화를 가깝게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자음악과 레이드 문화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입니다. 전자음악이나 레이드라고 하면 특정한 사람들만 즐기는 문화이거나,

클럽처럼 익숙하지 않은 공간을 직접 찾아가 경험할 수 있는 문화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BPM_Lab은 이러한 거리감을 줄이고, 지역 청년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전자음악과 레이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클럽뿐만 아니라 카페, 바, 전시장, 창고 등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음악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부담 없이 음악을 듣고 춤추며 머물 수 있는 분

위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단순히 DJ 공연을 선보이는 데 그치지 않고, 음악을 매개로 사람들이 만나 새로운 취향과 문화를 발견할 수 있는 경험을 만들고자 합니다.

결국 BPM_Lab이 만들고 싶은 것은 전자음악을 ‘잘 알아야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아닌, 누구나 자신의 방식으로 듣고 움직이며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입니다.

“일상 공간서 즐기는 레이드 문화”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진도에서 행사를 진행했을 때입니다. 진도를 여행하던 분들뿐만 아니라 광주에서도 많은 친구들이 함께 내려와 행사를 즐겨주셨고, 외국인 친구들도 참여해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인 자리였습니다. 특히 전자음악에 진도의 전통음악을 리

믹스해 함께 강강술래를 했던 순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무대 역시 한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직접 꾸몄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팀원들 모두 고생이 많았지만, 현장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즐기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수고를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또한 지역의 전통문화와 전자음악이 예상보다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마련한 자리에서 함께 어울리고 즐기는 모습을 보며 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날의 경험은 지금까지도 활동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되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입니다.

-청년들을 위해 꼭 필요한 법(제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DJ로 활동하고 있어서 더욱 크게 느끼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존중받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K-POP을 비롯한 문화 콘텐츠로 문화강국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거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예술가들은 수도권에 비해 공연 기회나 지원, 네트워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 결국 “계속 활동하려면 서울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 활동하기를 바라지만,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지역에 남기를 권하기보다 지역에서도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악·전자음악 믹스 강강술래 추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는 지금보다 규모가 크고, BPM_Lab만의 개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행사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저희 레이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주시지만, 막상 장소가 광주라고 하면 거리 때문에 쉽게 찾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 광주까지 찾아오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는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매력적인 레이드와 파티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공간과 무대 연출, 분위기까지 하나의 특별한 경험으로 기억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고, 광주에서도 충분히 개성 있고 경쟁력 있는 전자음악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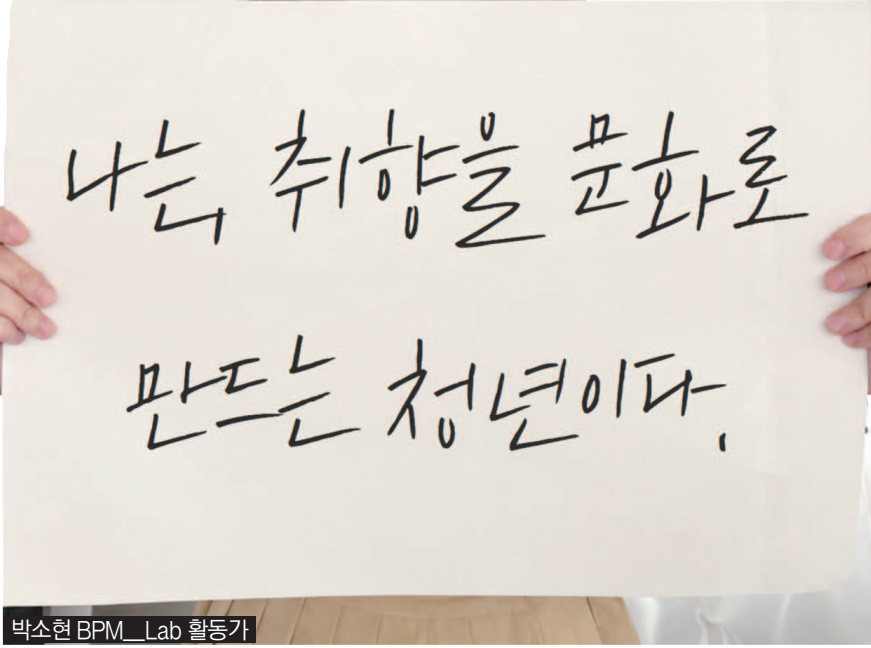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꼭 정해진 길을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도 처음부터 큰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다기보다는, 좋아하는 음악을 함께 듣고 재미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작은 행사를 하나씩 만들어가다 보니 지금의 BPM_Lab까지 이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할 때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기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작게라도 직접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거나 스스로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사람들을 모으며, 즐거운 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좋아하는 것을 오래 즐기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꾸준히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슬기 광주청년센터 교류협력팀



박소현 BPM_Lab 활동가



진도 삼락 북필을 축제 - 레드서클잔치



pour the house 행사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

